

# 우후죽순 숙박업소...여수 해양경관 훼손 심각

### 돌산 1·2대교 주변 해안가 잇따라 들어서 지역민들 반발 규제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市 9월 기본계획 내놓기로

여수시의 도심 해안을 따라 숙박·관광 시설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여수의 대표 관광상품인 '해양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돌산 2대교(거북선 대교)와 1대교 인근에 건립중인 관광형 숙박시설 등이 해양 경관을 크게 해치면서 경관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돌산 2대교에서 조망할 수 있는 해양경관을 가로 막고 있는 P호텔은 지난해 7월 여수시 경관위원회에서 재심의 끝에 기존 설계보다 층을 낮추는 등의 조건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986년 건설된 돌산 1대교 인근 건축물 역시 장군도 경관을 일부 가로막을 정도로 우뚝 솟아 해양경관 훼손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상 재산권 문제와 형평성, 법률·제도 미비 등 여수시가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상황여서 관련 조례 신설 등 강도높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돌산 1·2대교 조망을 훼손하는 건축물 등은 애초 경관 심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았지만, 주철현 여수시장이 직권으로 경관 심의를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돌산지역 등 여수 해안가를 중심으로 모텔·펜션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해양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여수시가 최근 전문가 그룹과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환경영역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수시가 지난해 10월 발주해 최근 완료한 용역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그룹 21%가 해양 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숙박업 건축물인 '모텔'을 지목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가로 시설물이 23%로 1위를 차지했으며, 모텔(18%)과 아파트(16%)가 그 뒤를 이었다.

중점관리가 필요한 여수시 경관으로는 전문가의 63%, 시민 41%가 해양경관이라고 답했다.

여수 대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문가 그룹(28%)과 여수시민(24%) 모두가 '풍경이 아름다운 도시 여수'를 1위로 꼽았다.

여수시의 대표 경관을 묻는 질문에서도



여수 관광을 대표하는 돌산대교 바로 옆에 모텔이 들어서 해양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전문가 그룹과 시민 모두 여수밤바다와 꽃섬길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하화도를 지목했으며, 이어 돌산공원과 오동도, 금오도, 돌산대교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반인 그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해당 지역 주민 522명을 표본으로 조사했고, 전문가 그룹은 관련업체 전문가 16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여수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

월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여수시의외 의견청취 등을 거쳐 9월 최종 경관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여수 해양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경관 심의 강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경관기본계획 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와 관련 계획을 마련해 경관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교통안전 행복도시 만들기' 대토론회

### 무단횡단 안하기·교통신호 지키기 등 다짐



여수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교통안전 행복도시 만들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국토교통부와 여수시, 여수경찰서가 주최하고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교통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철현 여수시장을 비롯해 박정재 시의회의장, 박병동 여수경찰서장, 지역 교통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와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시민과의 대화와 전문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여수시

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수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분야' 사전 설문조사 결과가 함께 발표됐다.

시민들은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무단횡단 하지 않기'(14.9%)를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교통신호 지키기'(12.2%),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폰 사용안하기'(12.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은 올해 교통사고가 잦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행복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여수시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서부권의 목포시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제주 뱃길 연 한일고속 최석정 대표 금탑산업훈장

여수와 제주 뱃길을 연 (주)한일고속 최석정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6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여수~제주간 '골드스텔라호'를 운항하는 (주)한일고속 최석정 대표가 최근 순천만 국가정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최 대표의 이번 금탑산업훈장 수상은 연안해운업계에서는 처음이다.

1977년 포항~울릉도 항로에 국내 최초로 초쾌속선을 도입한 이후 40여년간 연안여객사업에 몸담아온 최 대표의 연안여객선의 현대화와 대형화를 선도하며 연안여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해 9월 여수~제주 항로를 새롭게 열어 1000만 관광객이 여수·제주에 걸맞은 연안여객운송 시장 활성화와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석정 한일고속 대표는 "이 순간에도 침체한 연안여객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연안여객산업



최석정(오른쪽) 한일고속 대표가 최근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종사자와 관계자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도 연안여객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여객, 화물 수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일고속은 1970년 설립돼 현재 제주를 오가는 가장 빠른 쾌속선인 블루나래 등 완도~제주, 여수~제주 2개 항로에서 총 4척의 카페리를 운항 중이다. 최근에는 선진 여객 서비스를 인정받아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2013년과 2015년 각각 최우수 선사와 우수 선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청정 섬마을 순수한 아름다움에 빠지다

### 여수시·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초도 생태 체험행사'

아름다운 365개의 섬을 보유한 여수시가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와 함께 섬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초도 생태 체험 행사'를 가졌다.

6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 주관으로 마련한 '친구야! 섬으로 가자' 생태 체험 행사가 천혜의 해양보고인 초도에서 진행됐다.

여수에서 뱃길로 1시간 40분 거리인 초도는 예부터 황금어장으로 꼽히며 한때 인구만 3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수산업이 활성화됐지만 급격한 섬 공동화 현상으로 현재는 대동·의성·진막 3곳의 마을에 주민 450여명이 거주중인 청정 섬마을이다.

이순신 연구소가 전국 각지에서 엄선해 모집한 문화예술 전문가 등 40여명의 전문 생태 체험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마을 주민과 함께 하는 초도 현장포럼을 갖고

갯길 체험 등 마을 탐방, 초도 막걸리 걸러내기 등 향토음식 체험과 마을 생태탐방에 나섰다.

특히 지난 1885년 영국군이 2년 동안 거문도를 임시 점령했던 거문도 사건 당시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여수 섬지역만의 독특한 놀이 문화인 '산다이' 체험행사에는 200여명의 주민들과 체험단이 한데 어우러져 흥겨운 장을 연출하기도 했다. 산다이 놀이 문화는 섬 지역 젊은이들이 음식을 나누며 장구를 치거나 술상을 두드리며 노래 부르고 노는 놀이판으로, 현대언어로 풀이하면 이른바 '빚'을 타는 놀이다.

송은일 이순신 해양문화연구소 연구실장(전남대 교수)은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전국 각지의 전문가와 관광객들이 초도가 간직한 순수한 아름다움에 푹 빠져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시설 구축과 주민 경제 활성화에 필



전남대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가 전국에서 모집한 문화예술 전문가 등 전문 생태체험단이 최근 초도를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요한 다양한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한편이번 행사를 주관한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는 지난 2007년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처음 설립돼 이순신 유적 발굴과 임진왜란 재조명 사업,임란 당시 실제 거

북선(3D)고증,해양 실크로드 학술대회와 중국·베트남 등 고대 동아시아 해양문화 학술대회 개최 등 매년 학술지(해양문화연구집)를 발간하고 있는 지역 유일의 대표 인문학 연구소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경 축

#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Self MG 서양새마을금고

친절함 여객 차량 특별식 자동차세차기

성 건설

## 모집

###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